



증시 하락 배경과 대응 전략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구매 기업들의 마진 압박 우려 확산
투자 심리 변화와 리밸런싱 수요 증가에 주가 변동성 확대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의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코스피에서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높고 연초 이후 상승폭이 컸던 한국 증시의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큰 가운데, 일본·대만·홍콩 등 주요 아시아 증시와 미국 지수선물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 반도체 가격 상승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지만, 동시에 반도체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면서 궁극적으로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전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서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며 반도체주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금일에는 애플이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유로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해석이 빠르게 전환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조차 반도체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여타 IT 기업들은 더욱 심한 마진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 애플의 가격 인상 계획은 이미 며칠 전 팀 쿡 CEO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이슈가 AI 관련주의 차익실현을 촉발한 것은 현재 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작은 재료에도 과잉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역대급 강세를 보였던 한국 증시는 이러한 차익실현 압력에 더욱 민감한 환경입니다. 한국 주식의 비중 증가로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도와 연기금 등 기관의 리밸런싱 수요가 맞물리고 있는 가운데, 반기 말이라는 계절적 요인 역시 포지션 정리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주가 변동성은 펀더멘털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에 기인한 성격이 강합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향후에도 투자심리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매크로 여건과 기업 이익 성장세가 견조한 만큼 이번 조정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매도 대응보다는 관망 또는 변동성 확대 시 분할매수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